

5년만에 풀체인지... 3세대 프레임·중형급 크기 '눈길'

현대차 4세대 투싼 공개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디자인 적용 내부엔 풀 터치·전자식 변속버튼 가솔린·디젤·하이브리드 3개 라인

현대자동차의 베스트셀링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투싼이 5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현대차는 2015년 3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완전변경으로 새롭게 탄생한 '디 올 뉴 투싼(이하 신형 투싼)'을 15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4세대 투싼은 3세대 프레임 플랫폼을 적용, 기술과 디자인 혁신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신형 투싼은 현대차 디자인 정체성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적용하고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 테마를 구현해 도전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을 갖췄다.

특히 디자인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크기다. 3세대 프레임 적용으로 차체 길이도 이전 세대 대비 150mm 길어진



현대차 신형 투싼 전측면(좌) 실내(우).



4630mm의 전장을 확보했다. 축간거리도 85mm 늘어난 2755mm가 됐다. 중형 SUV인 2세대 쏘타페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상엽 현대차디자인센터장(전무)은 "신형 투싼은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완결하는 동시에, 현대차의 도전적이고 대담한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SUV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내는 개방형 클러스터(계기판)와 대시보드 아래로 위치를 내린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풀터치 방식

의 센터페시아, 전자식 변속버튼(SBW) 등이 미래지향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외장 컬러는 ▲쉬머링 실버 ▲타이탄 그레이 ▲크림스레드 ▲아마존 그레이 4종의 신규 색상을 포함해 ▲팬텀 블랙 ▲화이트 크림 등 총 6종이 있으며 내장 컬러는 ▲블랙 ▲인디고 ▲브라운 ▲그레이 등 4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형 투싼은 동력성과 연비 경쟁력을 향상시킨 스마트스트림 1.6 터보 하

이브리드 엔진을 처음으로 탑재해 엔진 최고 출력 180ps, 최대 토크 27kgf·m, 시스템 최고 출력 230ps, 복합연비 16.2 km/L의 높은 성능을 갖췄다. 이와 함께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엔진, 스마트스트림 디젤 2.0 엔진을 탑재해 총 3개의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된다.

모든 트림에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MCB)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차로 유지 보조(LFA) ▲운전자 주의

경고(DAW) ▲하이빔 보조(HBA)를 기본 탑재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CA) ▲안전 하차 경고(SEW) ▲후측방 모니터(BVM)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윈경 스마트 주차 보조(RSPA) ▲후석 승객 알림(ROA) 등을 추가로 선택 적용할 수 있다.

현대차는 16일부터 신형 투싼의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 판매 가격(개별소비세 3.5% 기준)은 ▲가솔린 모델 2435만~3155만원 ▲디젤 모델 2626만~3346만원이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은 10월경 별도 공개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 투싼은 차세대 SUV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것"이라며 "투싼이 제공하는 다채로운 라이프 공간을 많은 고객들이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산 "금호, 일방적 인수계약 해지 유감"

아시아나 M&A 무산 입장 발표

"재실사는 거래종결시 반드시 필요 계약해제 관련 법적대응 진행할 것"

HDC현대산업개발이 결국 아시아나항공 M&A(인수합병) 무산에 대해 입을 열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5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을 초우량 항공사로 변화시켜 국가 미래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와 HDC그룹을 모빌리티 그룹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성공적인 인수를 위해 매진해 왔기에 현재의 일방적인 해제 통지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인 인수를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수 이후의 성공전략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HDC그룹 로고.

다해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왔다"며 "그러나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 최근 공정위가 금호아시아나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수 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법률 리스크까지 현실화됐다"며 "만약 그대로 거래를 종결한다면 관련 임직원들의 배임 이슈는 물론 HDC

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었기에 재실사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산은 지난달 26일 이동결산 업무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 간 진행된 면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현산은 "지난달 26일 발전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협의에 임했다. 산은은 협의에서 기존 인수조건의 조정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전달했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당사도 인수 조건에 관해 요구한 바가 없다"며 "현산은 해당 면담에서 재실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12주를 고수하지는 않았다. 본 건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해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이통3사, '채팅+' 기업형 문자서비스 출시

그룹채팅·대용량 파일 전송 슬라이드 형태로 가독성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개인 간 문자메시지와 그룹채팅, 대용량 파일 전송이 가능한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기반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인 '채팅+(채팅플러스)'의 기업형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공동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RCS는 GSMA(국제이동통신사업자 연합회)의 차세대 표준 문자 규격을 말한다. '채팅+'는 기존 문자메시지 서비스(SMS·MMS)가 진화한 차세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앱 형태로 기본 탑재돼 있다. 현재 약 2500만 고객을 보유한 '채팅+'의 이번 기업메시징 서비스 출시는 기업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발신자가 선택할 수 있는 11개 메시지 형태 제공 ▲URL 삽입이 가능한 버튼을 통해 단순



한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전화번호 저장 없이 메시지 발송 기업의 로고 정보 확인 등을 새롭게 도입해 문자 신뢰도와 전달 효과를 고루 높이도록 구성했다.

/이통3사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HMM, 북미 항로에 컨테이너선 추가 투입

국내 화주들의 긴급 화물 운송

HMM(옛 현대상선)은 국내 화주들을 위해 북미 서안 항로에 컨테이너선 1척을 지난 8월에 이어 9월에도 긴급 추가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HMM은 이달 29일 4600TEU급 컨테이너선 'HMM 인테그랄호'를 투입할 예정이다. HMM은 지난달 국내 수출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부산~LA까지 직기항 서비스로 임시 선박을 투입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역시 같은 구간으

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했으나, 최근 미국 경제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내에서 수출되는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9월 말 추석연휴를 앞두고 국내 화물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미국의 본격적인 경제활동 재개 시 한국발 물동량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임시 서비스는 최근 북미 서안 항로에 선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는 국내 화주들의 긴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결정됐으며, 국내 화주 보호차원에서 중국 등 타 지역을 거치지 않고 부산~LA 구간을 직기항 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LS전선, 越 건설현장에 452억 케이블 납품

LS-비나, 프로젝트 95% 납품 예상

LS전선아시아의 베트남 자회사인 LS-VINA(비나)가 베트남 최대 규모의 대형 석유화학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케이블을 납품하고 있다.

LS전선아시아는 15일 LS-비나가 베트남 남부 붕파우주 룡 손 섬에 투자되는 대규모 석유화학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전력 케이블(고압, 중압, 저압) 납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의 총 수주 규모는 4000만 달러(475억원)다.

LS-비나는 지난해부터 해당 프로젝트 총 규모의 약 30%인 143억원 가량의

케이블을 EPC 업체들에 공급해왔고, 향후 약 65%인 309억원의 물량을 추가로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총 프로젝트의 약 95%인 452억원에 달하는 케이블을 납품하게 되는 셈이다.

LS전선아시아 관계자는 "LS-비나는 전력부문 수주잔고가 1분기(705억원) 대비 약 70% 증가한 1200억원을 보유함으로써, 하반기 실적 턴 어라운드 에 역할을 할 전망"이라며 "베트남 시장은 전력난에 직면해 있어 대형 발전소와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전망이며, 추가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